

민족 대단결의 숭고한 영혼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은 해외의 동포들을 만나주셨다. 그가운데는 남조선의 명망 높은 문인 환복사도 있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의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인 환복사를 친히 만나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인 환복사의 평양행을 몸소 반가워하시면서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셨다. 집견식상에서 문인 환복사는 《주석님!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라고 자신의 심정을 서슴없이 아뢰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래동안 해답을 찾을수 없는 골치거리였던 것이다. 조국을 통일하자면 분명히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의 정권이라 지주, 자본가들과는 불상용직업이라고 생각하던 그는 남조선의 그 많은 중산층들,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라져 잡을수 없었던 것이다. 하기에 그는 오래동안 고심하던 사람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진지하고 심중한 태도로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복사 미소로 그의 마음속에 고여있는 고민을 날려버리시며 미숙하나 일부사람같은 외세에 등업고 그들을 위하여 복부하는 때 판자본가는 반대하여야 하지만 민족적합성을 가지면 민족을 위하여 복부하려 하는 민족자본가는 다포섭해야 한다고 명백히 갈라주셨다. 단숨에 모든것이 석연해지며 머릿속에서 선이 쭉그어지고 통일의 밝은 전망이 그의 눈앞에 확안되었다. 문인 환복사는 북반초르는 감각에 목메이며 흥분에 겨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주석님! 그렇게만 하면 민족의 대단결은 문제없습니다. 민족의 단결이 곧 조국통일의 힘입니다. 그러나 벌써 조국통일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나는 자본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주석님을 찾아왔는데 민족자본가들과도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온갖 시름을 털어버린 사람처럼 고요한 평온이 깃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 모르는 기쁨에 겨워 조용히 웃고있는 문복사의 눈빛에서 통일을 위해 바쳐진 그의 고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헤아리시었다. 문복사는 웃음을 거두며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주석님!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라고 자신의 심정을 서슴없이 아뢰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래동안 해답을 찾을수 없는 골치거리였던 것이다. 조국을 통일하자면 분명히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의 정권이라 지주, 자본가들과는 불상용직업이라고 생각하던 그는 남조선의 그 많은 중산층들,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라져 잡을수 없었던 것이다. 하기에 그는 오래동안 고심하던 사람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진지하고 심중한 태도로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복사 미소로 그의 마음속에 고여있는 고민을 날려버리시며 미숙하나 일부사람같은 외세에 등업고 그들을 위하여 복부하는 때 판자본가는 반대하여야 하지만 민족적합성을 가지면 민족을 위하여 복부하려 하는 민족자본가는 다포섭해야 한다고 명백히 갈라주셨다. 단숨에 모든것이 석연해지며 머릿속에서 선이 쭉그어지고 통일의 밝은 전망이 그의 눈앞에 확안되었다. 문인 환복사는 북반초르는 감각에 목메이며 흥분에 겨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전영민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전조선적인 민주주의 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의 성과를 지지하는 평양시민들의 군중집회

민족분열을 고정화하는 범죄적인 《5.10선언》을 반대하는 남북조선인들의 투쟁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재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이었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 책동하는 민족분열의 위협이 더욱 커진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에서 《단독정부》를 세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 로써 전조선정부를 세우는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온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법적국가주권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것은 전제 조선인민의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었다. 1948년 6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에서는 전조선정부를 세우는데 대한 북의 제안이 나라에 조성된 엄중된 위기를 뚫고나가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강조하였으며 남북조선대표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

민회의를 창설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수립하며 최고인민회의와 공화국정부는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도록 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역사적결정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내외분열주의세력들의 폐로와 폭압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수천명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야수적폭압만 해도 남조선인민들의 연설 투지를 꺾지 못하였다. 그들은 공장, 농촌, 가두와 지어는 감옥에서까지 인민대표선출을 위한 선거선전사업과 서명투쟁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8월 9일 서울 통산역구내에서 한 선거선전위원회는 수천명의 령객들 앞에서 남북통일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에 찬성하라고 연설하였으며 이때 반동경찰들이 달려들자 군중들이 경찰들을 막아나서면서 연설자를 보호

하였다. 선거투쟁을 벌리다가 체포된 진주군녀맹위원은 악착한 고문으로 7시간만에 절명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영등포의 한 로동자는 매우 고고한 조건에서 8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부산방직공장의 한 여성 로동자는 혼자서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전인민적선거투쟁에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기업가, 종교교인을 비롯한 각계층의 인민들이 높은 열의를 안고 참가하였다. 하여 세계선거력사상 유례없는 악조건에서도 인민대표선출은 커다란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남조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여 1080명의 인민대표들을 선출하였다. 이어 해주시에서 8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가 진행되었다. 반의세투쟁의 날에 퍼홍리며

싸운 화순량 로동자들과 그 주변농민들 5786명이 시명하여 회의앞으로 보내는 편지에는 남조선인민들의 일치한 소원을 담았다. 《...여러분! 외세가 주둔하여 침략정책을 실시한이래 우리 로동자들은 조국의 통일자유, 민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 막대한 희생을 입어가면서 싸우는 우리 로동자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40여년간 주권을 빼앗긴 민족으로서 바다 건너 왜놈들의 야만적 압박과 착취를 우리 부모형제들이 얼마나 회생되었으며 얼마나 신음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뼈속에 사무치는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를 다시 보지 않고 압박없고 착취없는 독립국가를 건설하자하는것입니다. 이 골수에 사무치는 압박과 착취의 원한은 오직 남북통일의 자주적인 주주의국가 건설되어야만 다시 경험하지 않을것입니다. ... 끝으로 선명들이 우리의 선두에서 조국의 민주주의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다가 적탄에 맞아 성스러운 붉은 피를 흘리며 마지막으로 부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모두 같이 불러주십시오.》 반의세자주통일투쟁의 성스러운 길에서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이 남기고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남조선인민대표들은 승명만 따움을 담아 8월 25일에 360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출하였다. 북반부지역에서도 함께 남반부지역에서도 커다란 승리를 거둔 령사적인 남북총선거에 기초하여 전제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창설되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직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8월총선거투쟁은 거대한 조국통일운동사에 뚜렷한 한페이지를 새기었다. 본기자 김영진

은 동무를 잃었다고, 재능있는 연출가를 잃었다고 가슴 아파하시며 일군들에게 황철 동무가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신문에 부고도 내고 장례를 사회장으로 성대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만경대혁명학원을 보내주고 유가족들을 잘 돌보아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셨다. 그 때로부터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간 주체76(1987)년 4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라매전에 결을 떠난 황철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그의 자식들의 장례에 대해서도 관심하여주시었다.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연극예술발전에 기여한 황철의 예술적재능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는 한말이 없으나 연기를 아주 잘하였다고, 화술도 특출하였다고, 재능있고 훌륭한 배우였다고 추억해주셨다. 그리고 그의 유해를 예국립사용에 안치하도록 하고 조국통일상도 수여하도록 하셨다. 그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산 날은 13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길지 않은 이 나날에 것처럼 인간으로서, 예술인으로 누릴수 있는 행복을 다 누리고 받아안을수 있는 영광을 다 받아안은 황철이었다. 공화국의 첫 인민배우인 황철. 그는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서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있다. 한번 정을 주고 믿어준 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실 때 인생은 가장 아름다우며 별처럼 빛난다고. 본기자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오늘도 사 람 들 이 추억 하는 첫 인민배우

황철, 그의 이름은 공화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져있다. 그는 유명한 연극배우였고 연극연출가이기도 하였다. 해방후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항쟁의 노래》, 《백두산》, 《리순신장군》을 비롯한 많은 연극들에서 주역을 맡아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춘향전》의 변학도역 등 예술영화들의 감독과도 그의 재능있는 삶이 수렴되었다. 황철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속에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직에서 일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도 사업하였다. 예술인으로서 가장 값진 삶을 누린 그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것은 해방후 령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열리었던 시기였다. 당시 서울에서 외세의 조선반도지배를 규탄하는 연설을 하여 인민들투쟁에 불려오겠다고는 아니 최로 하여 《백경이》 따지가 붙어 온신해였던 황철에게 북조선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라는 초청장이 가달려되었다. 햇빛도 스며들지 못하는 음달된 곳에서 차갑게 얼어붙던 그의 가슴은 금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얼마후 은정어린 초청장을 가슴에 품은 그는 평양을 향해 서울을 떠났고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령사적인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아버지수령님의 귀중환교시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뒤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평양에 남아 그토록 열망하던 무대예술창조사업을 본때있게 해보고싶은 절절한 소망이 쇠물처럼 끓어번

졌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황철동무의 소원이 평양에 남아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무대예술창조사업을 하는것이라면 그 소원을 풀어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던 그가 서울에 나가면 연기 활동을 할수 없을것이라고, 황철동무의 소원대로 그가 평양에 남아있도록 하여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렇게 되어서 그는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서 예술창조 활동을 마음껏 벌리게 되었다. 당시 국립극장 배우가 된 그는 연극 《항쟁의 노래》에 출연하여 맡겨진 역형상을 훌륭히 하여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몇달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일군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황철의 일가식술을 데려오도록 하시고 그들의 살림까지 마련해주시었다. 남조선에서 유명한 배우였지만 세방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 한해에 몇차례씩 이사를 해야 하였고 끼니걱정으로 마음편할 날 없었던 황철은 따스한 온기가 흐르는 여러칸의 방과 갖가지 가구들, 차곡차곡 개여놓은 이불이며 우백미가 가득차있는 쌀독을 보자 너무나도 감격하여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날 그는 안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다짐하였다. 《여보, 장군님께서 계시여 내 집도 있고 무대도 생긴

것이 아니요. 내 꼭 장군님의 이 언덕에 보답하겠소.》 그는 연기훈련에 더욱 열중하였다. 그 나날에 지금까지 답습해오던 연기의 낱은 틀인 신과 자신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사신주의연기체계와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피나게 노력하였다. 그는 1949년 한해동안만에도 다섯번의 중한매연극에서 주인공, 주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가 출연한 연극들을 보여주는 이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역인물들의 감정을 능숙하게 잘 표현한다는 과분한 칭찬을 주시었다. 그해에 진행된 8.15해방 4돐기념 전국문학예술축전에서 그는 연기 1등상을 받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조선에 나가 전선무공영웅을 하던중 그는 갑자기 날아든 적폭격기들의 무차별적인 폭탄에 오른팔을 잃게 되었다. 그가 중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전선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배우의 생명을 위하여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셨다. 그리하여 국가와 인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가결치절환 전화의 나날 한평범한 연극배우를 위해 요연서린 전선길로 사랑의 구급차가 달리는 꿈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그가 소생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전과 같이 연기를 할수있게 의수를 잘해주어야겠다

의 주인공역도 맡아서 수행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배우로서의 두각을 나타냈고 훌륭한 연극배우가 될 희망을 안고 《조선연극단》와 동양극장산하의 극단인 《청춘악》 등에 들어가 배우생활을 하였으며 1939년 9월 《아랑극단》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배우들의 처지는 척박한 땅에 떨어진 불행한 씨앗과 다를 바 없었다. 그후 해방은 되었지만 남조선에 기여든 외세의 군호발에 민족문화는 무참히 짓밟혀졌고 진보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은 탄압당하였고, 황철도 무대를 버리고 은신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그랬던 자기가 지금은 어떤 인간으로 되었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의 가슴속에서 인생의 나래가 새겨져 퍼덕거렸다. 국가의 보살핌속에 외국에서 의수를 하고 돌아온 그는 더 높은 연기를 소유하기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는 그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1952년에는 공화국의 첫 공훈배우칭호를, 1955년에는 첫 인민배우칭호를 안겨주시었다. 이렇게 그는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공훈배우로, 인민배우로 되는 남다른 영광을 지니었다.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던

날 그는 자기가 걸었던 인생의 자욱자욱을 돌이켜보면서 햇빛과도 같은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해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으며 숨도 물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교육문화성 부상의 중요직책을 맡겨 문학예술부분사업전반을 보도록 하려고 한다고, 부상의 직책을 맡으면 연기활동을 더는 할수 없게 되는것으로 아쉽게 생각할수 있는데 무상으로 사업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연기도 할수 있고 방송소설도 읽을수 있으며 연출도 할수 있다고, 부상이라고 하여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다고 뜨거운 사랑을 담아 교시하시었다. 일생동안 무대를 떠나고 싶지 않아하는 그의 소원까지도 깊이 헤아려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가 부상사업을 하면서 국립극장총장사업을 겸하여 맡아보도록 해주셨다. 하여 그는 때로는 배우가 되어 무대에 나섰고 때로는 연출가가 되었으며 때로는 방송소설량독자가 되어 청취자들로부터 아낌없는 절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에 불타던 그에게 불치의 병이라는 무거운 악몽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황철동무를 꼭 살려야 한다고, 그를 어떻게 하나 살려야 한다고, 그 동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낌없이 없으니 약도 제일 좋은것으로 쓰고 정성을 다해서 그를 꼭 살려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하시었다. 그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정말 아까



황 철 선 생

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고타운 그 품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다지고 또 다시였다. 공화국의 품을 찾아온 한 사람한사람을 금새베끼처럼 아끼고 내세워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었다. 언제인가 황철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황철동무가 왔지만, 우리 명배우가 왔어, 나는 동무의 얼굴만 봐도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며 친히 그에게 잔을 권하시었다. 또 언제인가는 몸소 자신의 지략에 불려주시고 황철동무가 왔다고, 우리가 함께 일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늘 바쁘다나니 동무와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 한번 나누지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시간을 낸것이라고 하시며 그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

본기자 김영진